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6년 5월 13일(금) 조간
담당자	권규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041, kwonkh@kdi.re.kr)
배포일시	2016년 5월 12일(목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

권규호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

본고는 2016년 상반기 『KDI 경제전망』에 수록될 예정입니다.

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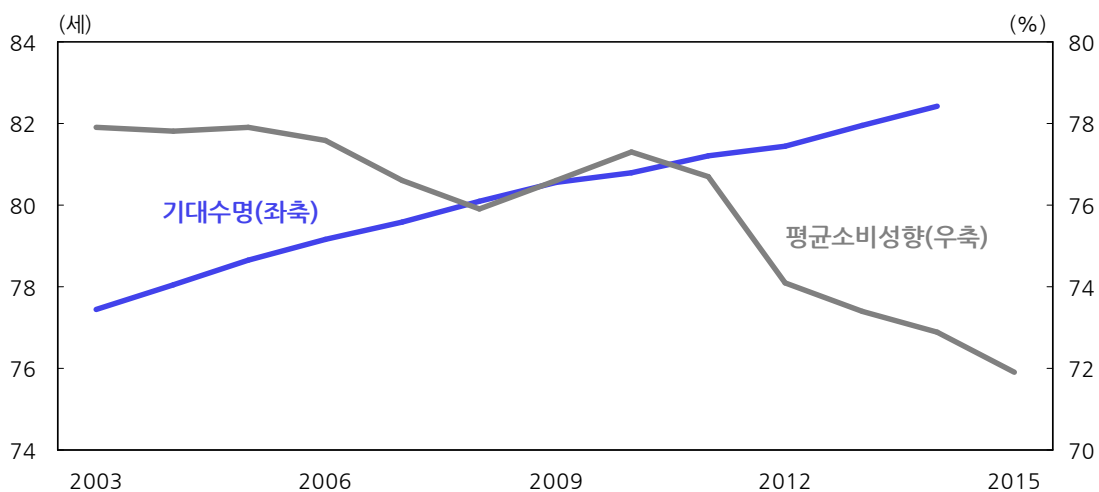
연구위원 권규호

1. 문제의 제기

■ 민간소비가 부진을 지속하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대수명이 지목되고 있음.

- 「가계동향조사」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(소득 대비 소비)은 2003년 77.9%에서 2015년에 71.9%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,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2014년에 82.4세를 기록

기대수명과 평균소비성향



자료: 통계청, 「생명표」, 「가계동향조사」.

■ 본고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와 저축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-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개인의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 변화가 경제 전체의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함.

2. 기대수명의 증가와 소비성향의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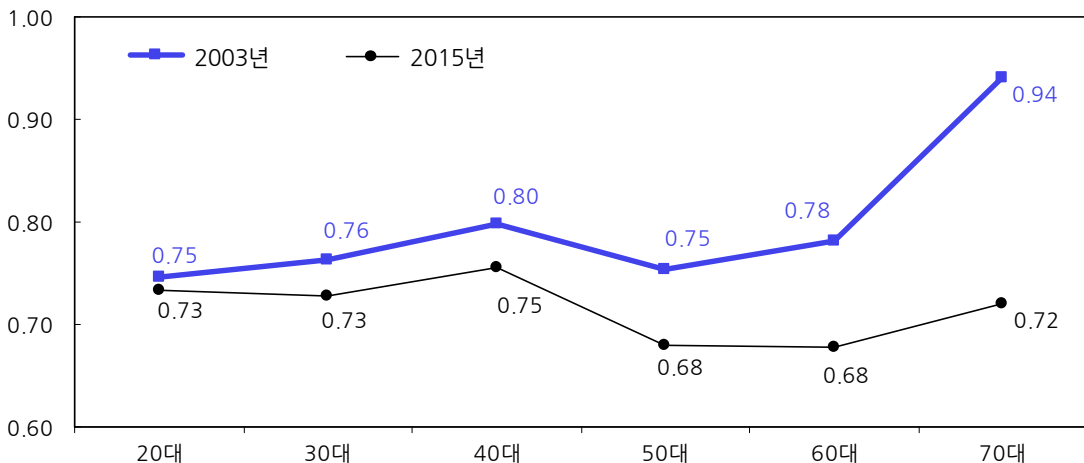
■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매년 0.5세 내외로 증가하고 있어 은퇴 이후 대비 목적의 저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

- 기대수명이 2000년 75.5세에서 2014년에 82.4세까지 증가하였는데, 이는 60세를 은퇴연령으로 가정할 경우 은퇴 후 생존기간이 대략 40% 정도 증가했음을 의미
- 이와 더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수준이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정체되어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.
 - 「2014년 가계금융·복지조사」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득 중 연금 및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 -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2000년 38.2%에서 2014년 39.7%를 기록하여, 건강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기대수명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지 않는 상황

■ 우리나라에서 평균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이론에 의하면 기대수명이 급속하게 증가한 결과로 설명이 가능함.

-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에 0.78이었으나 2015년에는 0.72로 크게 낮아졌으며, 이러한 현상은 ①전 연령대에서 발견되고 있고, ②고령층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남.

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



주: 「가계동향조사」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.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.

- ①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후대비를 위한 소요자금이 커짐을 의미하며, 이를 사전적으로 인지한 경제주체들은 전 연령계층에서 소비성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됨.
- ② 고령층일수록 기대수명 증가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조정해야 하므로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.
 - 예를 들어, 기대수명이 80세에서 81세로 1세 증가하면 70세인 경제주체는 생존기간이 11% 증가하는 반면 50세인 경제주체는 3% 정도 증가함을 의미하므로, 주어진 소득여건하에서 고령층일수록 소비를 더 많이 줄여야 함.

■ 이하에서는 기대수명 증가가 저축률(=100- 평균소비성향)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생애주기·중첩세대 모형으로 모의실험을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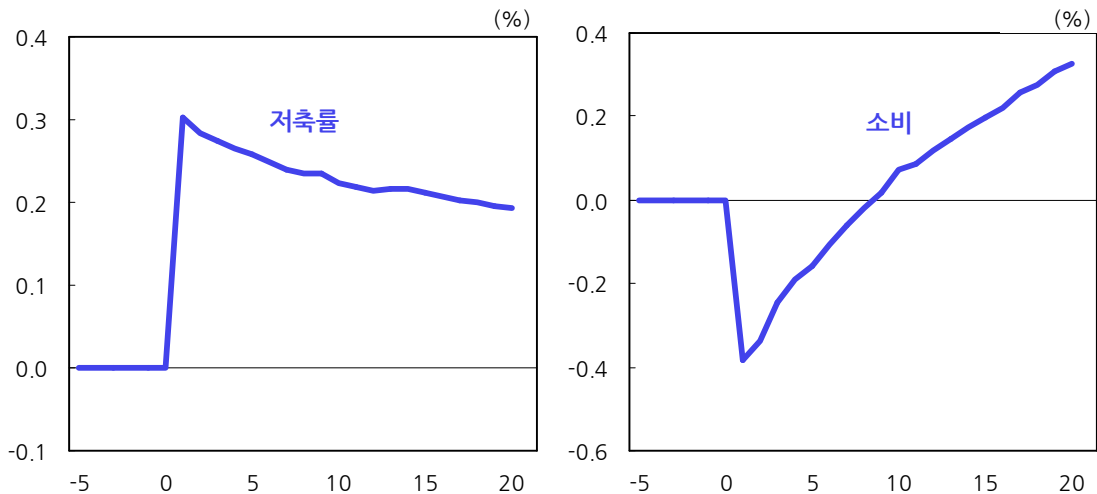
- 단기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에 기인하는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은 경제주체의 소득 대비 소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,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.
-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은퇴 이전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저축률 상승에 따른 자본축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경로도 존재
- 따라서 기대수명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생애주기·중첩세대 모형을 활용하고자 함.
 - 본고에서 사용된 모형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하여 수량화하였으며, 사망률 감소에 의한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을 분석함(모형의 개요는 ‘부록 2’ 참조).

3. 기대수명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

■ 모의실험 결과, 기대수명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저축률을 상승(소비를 감소)시키는 요인이나,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.

- 모의실험에서는 특정 시점($t = 0$)에 기대수명이 0.5세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,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충격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동공급, 소비 및 저축을 최적화하여 대응하게 됨.
-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경제주체들은 은퇴 후 생존기간이 연장될 것을 인지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며 기대수명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에 비하여 저축률이 0.3%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러한 저축의 증가는 소비 감소를 의미하지만, 은퇴 이전의 경제주체들은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의 일부를 보전하게 되므로 소비의 감소폭은 저축의 증가폭보다 작음.
- 장기적으로는 저축률 상승으로 더 많은 양의 자본이 축적되고, 은퇴 이전 경제주체들의 노동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기대수명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결과 장기에는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기대수명 증가가 저축률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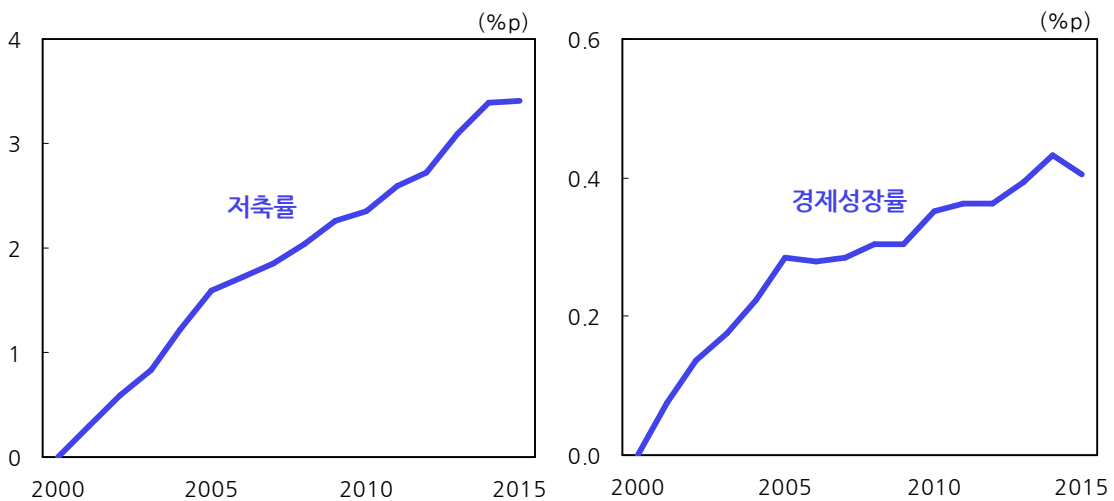


주: 1) 가로축은 시간(단위: 년)을 의미, 기대수명 증가가 이루어진 시점은 0으로 표기함.
 2) 모형경제에서 기대수명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 대비 저축률과 소비의 차이임.

■ 2000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, 우리 경제의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이 2015년을 기준으로 각각 3.5%p, 0.4%p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-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평균수명은 매년 0.5세 정도 증가하였는데,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기대수명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저축률(2015년 기준)을 3.5%p 정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됨.
 - 따라서 기대수명의 증가는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.
-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2015년을 기준으로 대략 0.4%p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- 저축률의 상승이 자본축적으로 연결되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제고된 결과 노동공급이 확대되고,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됨.
- 이와 같은 결과는 기대수명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다소 빠르게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
 - 즉,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이르고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데, 기대수명 증가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완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

2000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



주: 2000년 이후 기대수명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 대비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.

■ 한편,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는 노동공급이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, 저축률 상승이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제한적일 수 있음.

- 은퇴 이전의 경제주체들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게(0.4%p → 0.3%p) 나타남.
- 아울러 저축률 상승이 국내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상수지 흑자(해외 저축)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률 제고의 효과는 축소됨.

4.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

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저축률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이나,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및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.

-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기대수명 증가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둔화를 완충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.

■ 이상의 논의는 최근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,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

- 저축 증가가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를 비롯한 과감한 규제합리화,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필요
- 특히,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·장년층의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,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노동수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
 - 예컨대,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용,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피크제의 도입, 중·장년층에 대한 전직훈련 지원 등은 고령층에 대한 고용기피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도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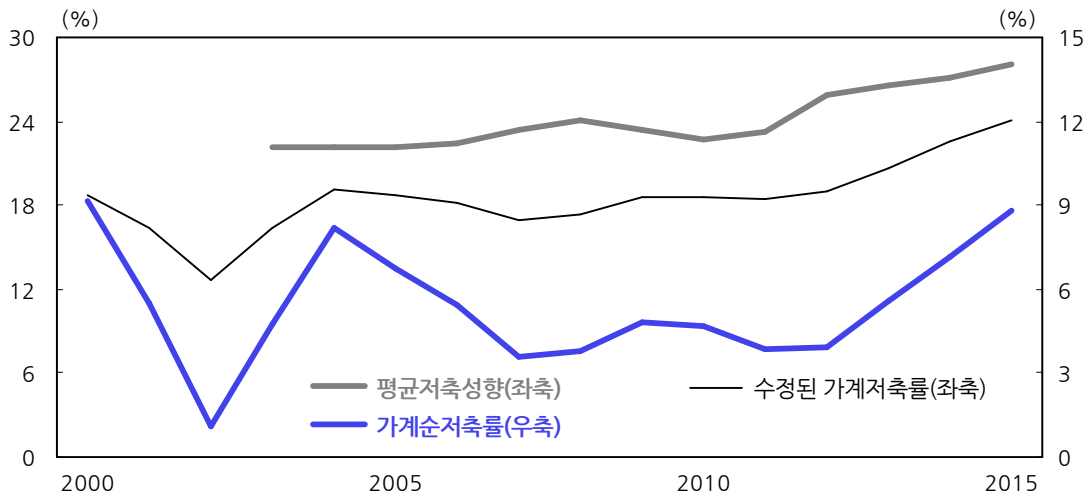
부 록

1. 가계순저축률과 평균저축성향

■ 「가계동향조사」의 평균저축성향(=100-평균소비성향)은 개념상 가계의 저축률로 해석할 수 있는데, 가계 전체를 포괄하는 「국민계정」의 가계순저축률과는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.

- 평균저축성향(=100-평균소비성향)은 2003년 22.1%에서 2015년 28.1%까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, 가계순저축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5% 내외에서 머물다가 최근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

평균저축성향과 가계순저축률



주: 1) 평균저축성향 = 100-평균소비성향
 2) 수정된 가계저축률은 「국민계정」의 소득분배계정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.
 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,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」.

■ 이러한 차이는 소득과 저축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, 가계순저축률은 사회분담금 항목을 가계의 소득과 저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.

- 사회분담금을 가계의 소득과 저축에 포함하고 소비를 최종소비지출로 한정할 경우 「가계동향조사」의 평균저축성향과 유사한 추세를 보임.

- 「국민계정」의 가계순저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.
 - * 가계순저축률(%) = (가계부문 순저축)/(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+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)*100
 - * 가계부문 순저축 = 소득 - 실제소비지출(최종소비지출 + 사회적 현물이전)
 - * 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 = 피용자 보수 + 가계의 영업잉여 + 순수취재산소득 + 사회수혜금 + 순기타경상이전 - 사회분담금 - 소득·부 등에 대한 경상세 + 사회적 현물이전
- 사회분담금(주로 국민연금)은 피용자보수의 일부이며 은퇴 이후를 대비한 가계의 저축이므로 가계의 소득 및 저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계의 저축성향을 보다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.
- 사회적 현물이전은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와 건강보험, 무상교육 등 일부 정부소비지출로 구성되며, 가계의 선택에 의한 지출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소득과 소비에서 제외하였음.
- 가계부문의 감가상각 또한 소득과 소비에 포함하였는데, 전반적인 수준에 영향을 주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에는 차이가 미미함.
- 한편, 가계가 사회분담금 이외에도 사적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부담금이 제도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아님을 시사
 - 즉, 강제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계는 기대수명에 대응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분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사적연금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것임.

2. 본고에 이용된 생애주기·중첩세대 모형의 개요

- 본고에서의 생애주기·중첩세대 모형은 콥-더글라스(Cobb-Douglas) 생산기술을 가진 대표적 기업과 연령이 다른 가구들로 구성된 폐쇄경제를 가정
 - 개별가구는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로서 20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65세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
 -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표적 기업은 경쟁시장에서 구입한 자본과 노동을 생산기술과 결합하여 생산활동을 영위
 - 가구들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노동수요가 일치하고, 가계의 저축과 기업의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시장임금과 시장이자율이 결정됨.

- 모형경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량화하였음.
 - 각각의 가구는 노동을 공급하는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「장래인구추계」의 생명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반영
 - 또한 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」의 연령대별 임금격차를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근로자의 상대적인 생산성 차이를 반영
 - 대표적 기업이 가진 총요소생산성 추이는 과거 실적치를 이용하였으며 향후에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가정
 - 총요소생산성은 실현된 경제성장률에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차감한 후 남은 잔차로 식별하여 모형에 투입하였으며, 계산을 위한 자본스톡은 「국민대차대조표」의 생산자본스톡을 사용하였으며, 노동투입은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의 취업자 수로 대체함.
 - 모형 내에서 저축률을 결정하는 시간할인요소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모형 시뮬레이션에 의한 투자율이 「국민계정」에 나타난 GDP 대비 투자율의 평균과 일치하도록 설정
 - 모형에서 투자율의 평균이 데이터와 일치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투자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내생적으로 결정됨.